

일 주 문



현성스님, 노인초청 경로잔치
서울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대한불교청년연합회 총재)은 5월 11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150여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용주사 다문화초청 대잔치
화성 용주사 정호 스님은 5월 16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대잔치를 열고 항공권,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



월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5월 31일까지 월정사 적광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특별 전권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 해인만다라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6월 13일 해인사 경내에서 제5회 글·그림 대전 해인만다라를 개최한다.



덕흥스님,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서울 길상사 주지 덕흥 스님은 5월 16일 맑고향기롭게 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열린선원 개원 5주년 법회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태고종 부원장)은 6월 5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개원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정도회 천일결사 입재식 봉행
정도회 지도법사 법문 스님은 6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인 수행 입재인 제6회 천일결사, 제9차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불래협 제26회 연꽃문화제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6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부처님마음, 부처님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제2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승만보살 10대원 회향법회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6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행장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동방대학원대학교 사회화품전
정상욱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은 5월 27일~6월 2일 백암미술관에서 개교 5주년 기념 사회화품전을 개최한다.

interview

“경쟁만 하다 죽으면 허탈할까 출가”

‘젊은 날의 깨달음’ 펴낸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 교수 헤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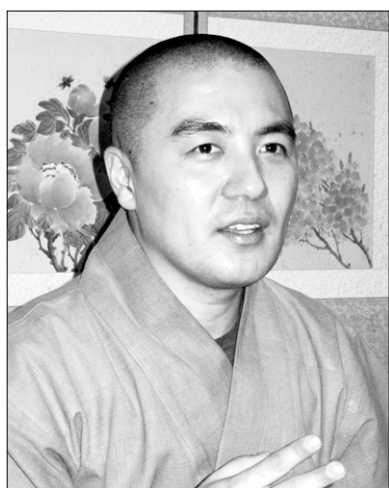
‘UC버클리 졸업, 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원 박사...’

입학하기 어려운 미국 명문대에 들어가 세 곳의 졸업장을 거머쥔, 흔히 말하는 고(高)스펙의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그는 갑자기 출가했다. “성공을 위해 끝없이 경쟁만 하다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은 미국 최초의 한국인 스님 교수인 헤민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UC버클리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학위를,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매사추세츠주 햄프셔셔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교수다.

헤민 스님은 최근 발간한 에세이집 <젊은 날의 깨달음>(클리어마인드)에서 10여 년 동안 유행생활을 하며 겪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미국으로 영화공부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버클리대에서 만난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영향으로 종교학으로 전공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학 수업을 같이 들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죽을 앞에는 학위·



돈·명예·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지요.”

스님의 책에는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스님은 “책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면서 하버드대만 들어가면 성공하는 줄 아는 한국의 빼돌어진 교육열을 지적했다.

스님은 “하버드”라는 간판을 쫓기보다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교육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종교학자 막스 밀러는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던 그 종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헤민 스님은 막스 밀러의 말을 인용하며 “한 가정 내에서도 종교가 달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이 종교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던 모습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익힌 스님만의 ‘몸으로 부딪히기’ 식의 외국어 공부 비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티베트 불교가 붐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 불교가 불교의 정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스님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한국불교를 배우려고 방한하는 외국인들을 잘 교육시켜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불교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것이 아쉬워 앞으로 미국 등 외국에 한국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불교와 현대불교를 연결하는 연구를 계획해 다이나믹한 한국 불교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진각종 낙산심인당 헌공불사

진각종(총리원장 혜정)은 5월 18일 낙산심인당(주교중혜) 이전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낙산심인당 이전신축 헌공불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하며 마음 속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회향의 밑업정도를 여는 것”이라며 “수행을 위해 우리는 지역의 정서와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해 스스로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일하지 않는 정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산심인당은 대지면적 1079.9㎡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조동섭 기자

해운대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

부산 해운대 룸비니포교원(주지 겸 조실 도문)은 5월 10일 해운대 백사장 등에서 수륙고혼 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문 스님은 무상계와 고려대장경 6부 핵심 사구계를 설해 고훈들을 천도하고 천안함 희생자를 위로하는 한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남북통일의 발원국 태민안을 기원했다. 조동섭 기자



한편, 수륙고혼 천도법회는 1912년도에 용성 스님이 한강에서 처음 시작돼 99년을 이어오고 있다. 조동섭 기자

목포불교사암협회 연등법회

목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원, 법주사 주지)는 5월 16일 목포역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진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사에는 목산 스님(前 대흥사 주지), 도정스님(대흥사 총무), 목포역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진을 펼쳤다.

대구 수도암 수자타공양실 현판식

대구 수도암(주지 승원)은 5월 14일 ‘수자타 공양실’ 현판식을 열고, 전통 약선요리 등 웰빙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전 수자타란 여인에게 우유축을 받아 기력을 회복한데서 이름을 딴 이

공간에서는 천연 식재료를 이용한 약선요리 등이 신도와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주지 승원 스님은 “수자타 공양실을 다도 등을 무료로 강의하는 문화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고창 선운사 군산교도소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5월 19일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지 법만 스님을 계사로 48명의 불자재소자

들이 5계를 수지하고 건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법만 스님은 “수계는 범부가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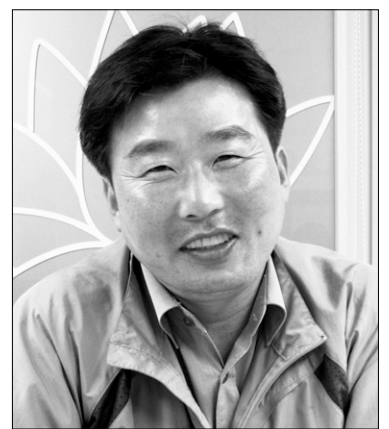
‘연우와함께’ 이상근 신임 대표이사

“성과와 효율보다 가치 공유가 우선입니다. 제품을 통한 상생, 가치 공유와 생활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불교계에 빠를 문겠다는 결심으로 기도와 정성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에 이상근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사회적 기업은 돈 벌어서 좋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설립, 소비, 생산, 투자자들도 모두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 공유는 ‘상생’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일자리·수익창출을 통한 회향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을 넘어 생산자·소비자·판매자 등



이 서로 불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대표와 직원도 상하구조의 리더십이 아니라 원(圓)의 리더십을 통해 원융화합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성과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기업이 ‘연우와함께’입니다.” 이상근 기자

이상근 대표는 “효율성으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사명이 기반이 된 공생을 이뤄 ‘연우와함께’를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낸 유기농 제품, 수익을 얻고자 생산하기보다 나누고자하는 생산자 발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한 일의 팔 안 에 우주가 깃들어 있음을 깨우쳐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교계는 사회적 기업의 텃밭이라 불릴 만큼 제조 생산 유통 판매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연우와함께’를 보고 불교계에서 1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Table with 2 columns: 교육과목 and 교육기간. Lists subjects like 인체생리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 etc., and a 14-week course on Tuesdays.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 List of regional education centers: 영남교육원, 호남교육원, 대구교육원, 광주교육원, 부산교육원, 지리산연수원, 울산교육원, 제주교육원, 충청북교육원, 경남서부교육원, etc.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덕범

- List of members: 승정원장, 총무원장, 사무원, 신원, 호법원, 교육원, 포교원, 문화원, 국제문화원, 감사원, 포교사회회장, 포교사회부회장, 중앙신도회회장, 중앙신도회부회장, 중앙신도회총무, 청호만오, 지언만성, 화륜송봉, 덕산남승, 도행, 삼장, 지언, 대력, 법륜, 일교, 도경, 보성, 금강, 성산, 청련, 도경, 관음, 법장, 대행, 대비, 해봉, 만공, 정산, 금봉

충분산 대우량사: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 전화 055)672-4591~2, 672-4394